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우려하는 이유

경기도가 산하 체육진흥센터 설립 문제로 시끄럽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부패한 경기도체육회를 대신하겠다며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체육진흥센터의 설립은 사실상 경기도체육회가 진행해 온 대부분의 체육사업의 수행과 예산 집행을 경기도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경기도체육회는 꺾데기만 남고, 사실상 경기도가 그간 체육회가 해 온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난해 경기도의 감사에 적발되어 상당부분의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된 경기도체육회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선출직 민선체육회장 체제를 새롭게 출범한지 1년 남짓한 경기도체육회를 사실상 해체하는 처방은 분명 크게 잘못되었다.

경기도체육회 감사 결과 문제점들이 적발되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통해 건전한 체육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상식적인 처방이다.

치유 대신 잘라내는 처방을 택한 것이다. 손가락이 굼았다고 짜내는 대신 잘라버린다면 그걸 누가 제대로 된 처방이라고 생각할까.

경기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엄연히 인정하는 단체다. 특히 해당 법안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가 특수목적법인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이 되면 모두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전국에서 경기도만 유독 산하에 체육진흥센터를 만들고

체육회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는 것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직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시키고, 민간 체육인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였는데, 이같은 법 취지와도 크게 어긋난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체육진흥센터 설립이 강행된다면 이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간신히 민선 체제로 자리잡고 있는 전국의 지방체육회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1년 남짓 남은 지방선거에서 기존 체육회장과 뜻을 달리하는 지자체장이 당선될 경우, 경기도의 전례를 따라 얼마든지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통해 얼마든지 기존 체육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체육회 예산이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스러운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센터'라는 이름만 거창한 관치기구의 탄생에 전전긍긍하는 이유이다.